

【 주간이슈 】

IFRS 등 환경변화가 손해보험 준비금에 미치는 영향

김소연 부연구위원

- 준비금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환경변화는 준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
 -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(IFRS)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손해보험 부문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의 하나로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이 요구
 - 2013년 IFRS 두 번째 도입단계(IFRS 4 Phase II)에서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
 - 최근 5년간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지만, 높아지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
-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손해조사비가 발생손해액으로 분류 변경되고 손해조사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준비금이 증가
 - 늘어나는 부채 규모를 가능하고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.
- 손해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의한 감소폭과 리스크 마진에 의한 증가폭이 상쇄되어 명목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계산됨.
 - 손해보험영역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의 전환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로 전환에 의한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로 보임.
- 과거의 추세와 다르게 물가상승폭이 확대되면 과거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는 지급보험금이나 발생손해액의 추이로 예측하는 지급준비금은 부적절하게 계산됨.
 - 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시 물가상승폭 확대에 따른 필요증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, 자산부문에서는 물가연동채권펀드나 주식을 이용해 물가상승에 의한 원가상승을 일정부분 해지할 수 있음.

1. 논의배경

□ 손해보험회사의 부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급준비금은 그 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손실 지급에 대해 예측하는 값이어서 불확실성이 큼.

- 지급준비금은 회계연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보상하기 위해 적립됨.
-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장기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장기 저축성 보험료적립금이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, 외국의 손해보험회사나 우리나라 전업사의 경우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

□ 그러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금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.

- 충분한 지급준비금이 적립된다면 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더라도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보호됨.
 -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는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함.
- 보험회사의 수익이나 지급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적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함.
- 요율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발생손해액(Incurred Loss)은 지급준비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지급준비금은 미래의 보험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□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IFRS 도입 계획 등 환경변화는 지급준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그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 변화가 지급준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란이 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.

-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(IFRS: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)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손해보험 부문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.
 - 손해보험영역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(지급준비금 평가제도 보완,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, 미경과보험료 평가제도 도입, 비상위험준비금 항목 변경, 재보험자산 구분계상 및 평가)의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데, 이 중에서도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함.
- 2013년 IFRS 두 번째 도입단계(IFRS 4 Phase II)에서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임.

- 시장가격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- o 최근 5년간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지만, 높아지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2. 제도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준비금의 영향

가.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

□ 2011년부터 도입되는 IFRS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국제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.

- o 지급준비금 평가제도 보완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현금흐름을 고려하는 등 지급준비금 제도 전반을 정비
- o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조사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발생손해액으로 분류 변경하여 부채항목에 손해조사준비금을 신설
- o 미경과보험료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미경과보험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채를 적립
- o 비상위험준비금의 항목 변경으로 인해 현행의 부채계상이 금지되고 자본 내 법정준비금의 항목으로 변경
 - 자본증가에 따른 세무부담 발생과 이에 대한 세제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.
- o 재보험자산 구분계상 및 평가 도입에 따라 출재준비금을 현행의 원수계약 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대신에 별도의 재보험자산으로 구분 계상하고 손상 시에는 장부금액을 감소하여 당기손실로 인식

□ 이 중에서도 준비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증가율을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해 볼 수 있는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.

- o 사업비의 일부인 손해조사비는 현재 지급기준의 항목이므로 지급보험금과의 규모 대비를 통해 발생기준으로 적립될 경우 이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음.
- o 그러나 손해조사비 범위 확대에 대한 영향은 예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.

□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손해조사비가 발생손해액으로 분류 변경되고 손해조사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준비금이 증가할 것임.

- 복미의 경우 각 사고 건에 배분할 수 있는 손해조사비(ALAE: 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s)는 지급준비금에 포함이 되어 있음.
- 우리나라의 현행은 외부용역수수료나 소송관련비용 등 손해조사비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다 지급되는 회계연도의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음.
 -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고, 이에 대한 별도의 준비금은 없음.
- 개선안에서는 보험금 사정 및 구상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손해조사비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·통일하고 손해조사비를 발생손해액으로 분류하여 손해액과 마찬가지로 준비금을 적립토록 함.
 - 보상직원의 인건비 중 일부는 현재의 급여계정에서 손해조사비계정으로 변경될 예정임.

□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의 지급손해조사비와 지급보험금의 규모를 대비해 보면 손해조사준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지급준비금은 적어도 평균 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손익계산서의 순사업비 중 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급손해조사비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비율은 평균 3.9%로 나타나며, 보험회사별로는 1.9%에서 4.8%까지의 편차를 보임.
- 그러나 이는 현행 분류에 의한 손해조사비이며, 개선안에 따라 보상직원 인건비나 기타 직접 발생비용을 추가하게 되면 준비금의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.

<표 1> 현행 지급손해조사비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비율 (FY 2009)

손해보험회사	A	B	C	D	E	F	G	H	I	평균
비율	1.9%	2.4%	2.5%	3.0%	2.6%	4.8%	4.5%	4.4%	4.0%	3.9%

주: 비율들은 원수기준임. 그러나 보유기준으로 계산하여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음.

자료: 손해보험통계(2010.3), 손해보험협회 통계자료실

□ 이로 인해 제도가 도입되는 해에 손해율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지만, 위험률이 최적화되고 사업비 과다에 대한 오해가 일부 해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- 지금까지 부재했던 손해조사준비금의 적립과 이의 손해액으로의 분류로 인해 손해율의 일시적 증가현상이 예상됨.

- 그러나 손해조사비는 사고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으로 이를 포함하여 위험률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나.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

□ 공정가치는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시장 관측치로 측정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, 이들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시장 관측치로 측정하지만 보험부채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.

-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보험회사에게 넘길 수 없음.
-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부채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음.
 - 각 회사의 마케팅 전략, 언더라이팅 방침, 증권 유형, 보상범위 등에 따라 각각의 보험부채 포트폴리오는 이질적이고 독특한 특징을 보임.
-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해 정보에 있어서 훨씬 우월적인 위치에 있고 구매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는 역선택에 처할 가능성이 큼.

□ 따라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장가치를 관찰할 수 없는 부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원리의 평가방법을 정립하는 것임.

-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: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)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현금의 시간가치와 현금흐름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¹⁾
- 즉,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= 부채의 현가(현금흐름, 시간가치) + 리스크 마진

□ 현재의 손해보험부채 평가방법은 추정된 명목적인 부채규모가 그대로 적립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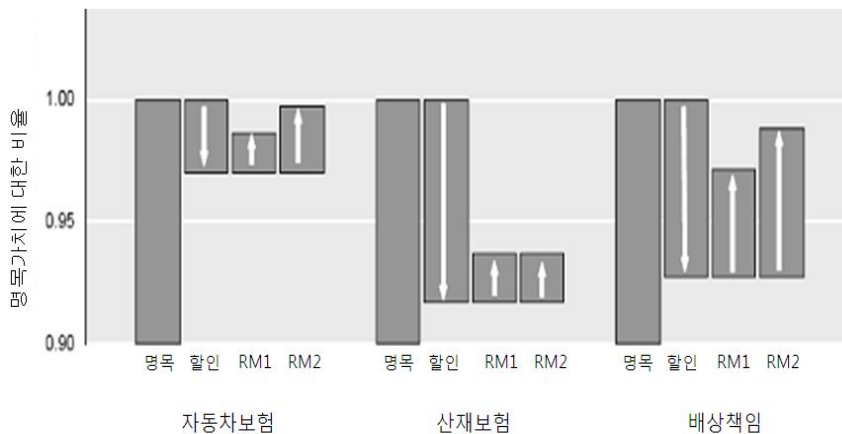
- 적립된 부채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위한 것이지만, 현가의 개념을 적용해 적립하고 있지 않음.
- 상품에 따라 적립된 부채의 변동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.

1) 김소연, “손해보험 부채의 리스크 마진: 해외사례 중심”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2010.02.08 참고

□ 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율과 리스크 마진의 규모에 따라 명목가치보다 작거나 커질 수 있음.

- 부채의 평균지급기간이 짧은 종목은 할인에 의한 효과가 적고, 긴 종목은 그 효과가 큼.
- 부채 적정성의 불확실성이 작은 종목은 리스크 마진이 작고, 큰 종목은 리스크 마진이 큼.
- <그림 1>은 표본 20개사의 평균값으로, 20개사의 공정가치 대 명목가치 비율 분포를 도시하면 <그림 2>와 같음.
 - 공정가치는 평균적으로 명목가치보다 작게 나타났지만, 개별사의 할인율과 리스크에 따라 커지는 경우도 있음.

<그림 1> 보험부채의 명목가치와 공정가치



주1: 자동차보험은 지급기간이 비교적 짧고 부채의 변동성이 작은 종목, 산재보험은 지급기간이 길고 부채의 변동성이 작은 종목,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부채의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종목
 주2: 리스크 마진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측정되었으며, RM1과 RM2는 각각의 방법에 의한 마진²⁾
 자료: Conger et al., 2004, How Might the Presentation of Liabilities at Fair Value Have affected the Reported Results of U.S. Property and Casualty Insurers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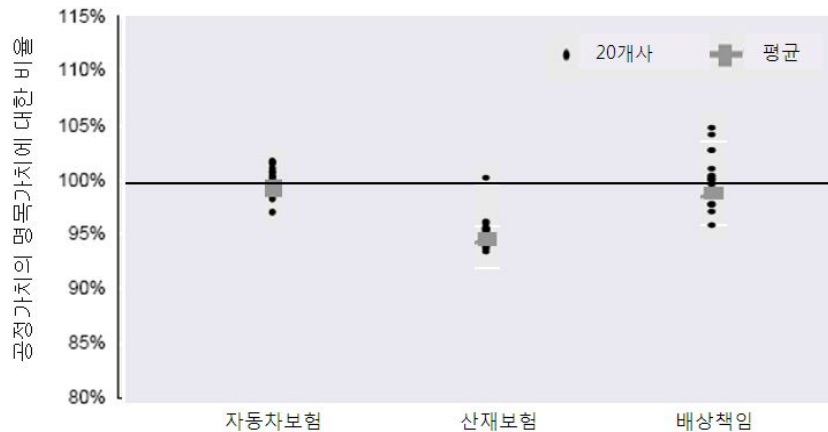
□ 손해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의한 감소폭과 리스크 마진에 의한 증가폭이 상쇄되어 명목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계산됨.

- <그림 1>에서 볼 수 있듯이, 세 종목 모두의 20개사 공정가치 평균은 오히려 명목가치보다 낮아짐.

2) RM1은 Mack의 분석적 방법(Thomas Mack, "Measuring the Variability of Chain Ladder Reserve Estimates", *CAS Prize Paper Competition on Variability of Loss Reserve*, 1993, p. 102-182)에 의한 리스크 마진이며, RM2는 Hodes, Feldblum과 Blumsohn의 확률론적 시뮬레이션 방법(Douglas Hodes, Sholom Feldblum, and Gary Blumsohn, "Workers Compensation Reserve Uncertainty", *Proceedings of the Casualty Actuarial Society*, Volume LXXXVI, p. 263-392)에 의한 리스크 마진

- 명목가치의 준비금은 할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인 리스크 버퍼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
<그림 2> 표본 20개사의 공정가치 대 명목가치 비율



자료: Conger et al., 2004, How Might the Presentation of Liabilities at Fair Value Have affected the Reported Results of U.S. Property and Casualty Insurers?

- 손해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는 도입으로 인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소요에 비해 눈에 띄는 부채측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으로 인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.

- 재무제표에서 자산이나 타 금융상품과 일관성있게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식
- 그러나 측정의 어려움, 더 많은 추정치의 사용에 의한 불확실성, 시스템구축 비용, 그리고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역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.
-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 도입을 대체할 준비금 적정성 테스트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

다. 물가상승률과 지급준비금

- 최근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물가상승폭 확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장을 하는 손해보험의 원가상승이 예상됨.

- 요율산정 시 감안되지 않았던 증가된 손실액은 현재 보유계약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.
 - 신계약이나 갱신계약은 요율이 증가된 손실액을 감안하여 재산정된다면 이로 인한 악영향은 해소됨.
- 이와 함께 미래의 보험금 지출을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.

□ 과거의 추세와 다르게 물가상승폭이 확대되면 과거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는 지급보험금이나 발생손해액의 추이로 예측하는 지급준비금은 부적절하게 계산됨.

- 먼저 비교적 짧은 지급기간의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예로 들면, 예상물가상승률이 증가함에 따라 준비금필요증가분은 지속적으로 커짐.
 - 사고년도 기준 약 80%의 손해액이 2년의 경과기간동안 지급되고 최종손해액은 4년에 걸쳐 지급된다고 가정 (누적 평균 지급패턴: 50%, 80%, 90%, 100%)
 -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의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
 - 과거 평균 물가상승률은 2.5%로 가정

<표 2> 미래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급준비금 필요증가분 - 짧은 지급기간

예상 물가상승률	3.0%	3.5%	4.0%	4.5%	5.0%
준비금 필요증가분	0.73%	1.46%	2.17%	2.88%	3.58%

주: 필요증가분은 예시에서 도출되는 현 지급준비금에 대한 비율임.

- 긴 지급기간의 패턴을 보이는 종목에서는 예상 물가상승률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.
 - 사고년도 기준 약 45%의 손해액이 2년의 경과기간동안 지급되고 최종손해액은 8년에 걸쳐 지급된다고 가정(누적 평균 지급패턴: 25%, 45%, 60%, 70%, 80%, 90%, 95%, 1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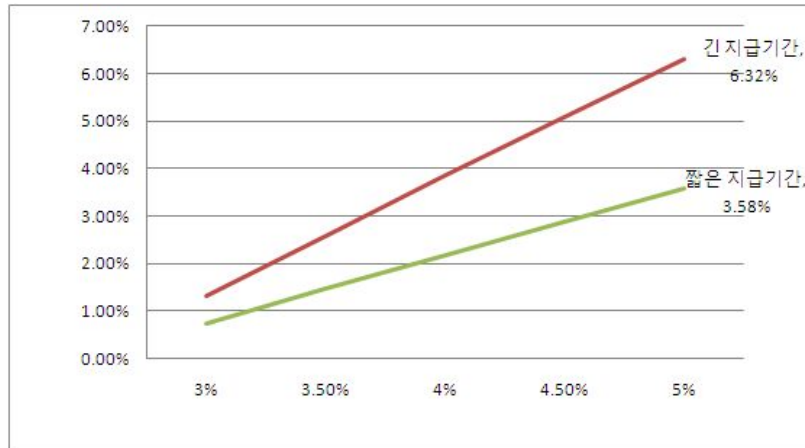
<표 3> 미래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급준비금 필요증가분 - 긴 지급기간

예상 물가상승률	3.0%	3.5%	4.0%	4.5%	5.0%
준비금 필요증가분	1.30%	2.58%	3.84%	5.09%	6.32%

주: 필요증가분은 예시에서 도출되는 현 지급준비금에 대한 비율임.

-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는 시점이 예시와 달리 사고가 보고되고 개별추산금이 책정되는 시점이라면 증가폭은 줄어들 것임.

<그림 3> 미래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급준비금 필요증가분의 비교



- 따라서 과거의 추세와 달리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된다면, 이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상승을 감안하여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.

3. 시사점

-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으로 늘어나는 부채 규모를 가능하고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.
 -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회사는 가용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에 의한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추가 적립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임.
 - 기존의 사업비 일부 항목을 새로이 손해조사비의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립이 필요함.
- 손해보험영역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의 전환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로 전환에 의한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로 보임.
 - 특히 공정가치로 평가된 부채는 명목가치로 평가된 그것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 - 도입으로 인한 장점으로는 자산과 타 금융상품들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만큼 부채도

그렇게 함으로써 대차대조표의 모든 항목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자의 시각에서 가장 타당한 부채의 측도라는 점을 들 수 있음.

- 도입으로 인한 단점으로는 지급패턴이나 할인율 등의 더 많은 추정치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나 조작가능성과 공정가치 회계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비용, 이들로 인한 역효과의 우려 등이 있음.
- 따라서 부채의 적정성 평가 도입 등 위의 여러 단점들을 축소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기임.

□ **물가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면 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시 필요증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**

- 물가상승폭 확대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준비금은 경과가 됨에 따라 준비금 부족분이 커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, 이는 RBC 준비금 위험계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□ **또한 자산부문에서는 물가연동채권펀드나 주식을 이용해 물가상승에 의한 원가상승을 일정부분 해지할 수 있음.**

- 물가연동채권이나 주식을 자산운용에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험원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음.
- 미국 RBC제도에서는 주식이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함을 감안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일정부분 상쇄한다는 점과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보다 주식 보유비율이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한 위험계수를 생명보험회사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. KiRi